

# AI도 윤리 논란 ... 챗봇 '이루다' 서비스 중단

### 메신저 프로그램 통해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화 주고받는 서비스 혐오 발언에 성차별 지적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만큼,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윤리'의 벽에 부딪혔다. 윤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AI 챗봇 '이루다'가 지난 11일 결국 서비스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출시한 챗봇(채팅 봇)으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화를 주고받는 서비스다. 20대 여성을 모티브로 제작된 챗봇 이루다는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 출시 2주 만에 이용자 75만명을 넘기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동성애·장애인 혐오, 성차별적인 말뿐 아니라 욕설, '일베'에서 쓰이는 표현 등을 무분별하게 쏟아낸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한 이루다와 대화에는 "레즈비언에 왜 민감해"라는 질문에 "진짜 싫다. 혐오스럽다"고 답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하철 임신부석"이라는 말에 "혐오스러운 단어"라고 답하거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이는 이용자들이 이루다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AI 챗봇 '이루다'

'학습' 시킨 결과다. 이루다는 구글 '알파고'와 비슷한 딥러닝 AI로, 무수한 SNS 이용자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대화 패턴을 익혔다. 이용자와 이뤄지는 실시간 대화도 학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AI 윤리 논쟁은 이루다가 처음이 아니다. 마이

크로소프트가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챗봇 '테이'(Tay)도 윤리 문제로 흥역을 앓다 16시간 만에 운영 중단됐다. 당시 '테이'는 백인우월주의, 여성·무슬림 혐오 등 인종·성차별·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테이는 이용자들로부터 '날 따라해 봐'(repeat

after me)라는 문장을 배웠고, 이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테이가 비속어와 차별적 언어를 말하게끔 유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는 욕설은 물론 "9·11 테러는 조작됐다", "히틀러가 옳았으며, 나는 유대인이 싫다", "페미니스트는 죽어야 한다"는 등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결국 이용자가 부적절한 표현을 가르친 셈이니, 이용자가 문제'라는 의견은 힘을 얻기 힘들다. 2017년 세계 AI 전문가들은 '미래 인공지능 연구의 23가지 원칙'을 발표, "AI 시스템의 설계자는 사용·오용과 그 도덕적 영향의 이해 관계자이며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고도화된 AI 시스템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AI의 편견·차별을 방지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하버드 법대 버크만센터도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된 AI 윤리 원칙으로 '공정성과 무차별성'을 꼽기도 했다. 이루다 개발사는 제한 키워드 설정 등으로 부적절한 대화에 대처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들의 공격을 학습 재료로 삼고, 더 좋은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루다가 성희롱 표현에 무력하다'는 지적부터 개발사의 개인 대화 내용 무단 유출 논란까지 불협화음이 겹치면서 이루다의 미래는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급증 1명 당 게임에 쓰는 돈은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1명당 게임에 쓰는 돈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페이스북이 12일 펴낸 '2021년 게임 마케팅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신규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은 작년 3월 대비 34% 늘어난 9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영국(50%)에 이어 가장 큰 증가 비율이다.

이 기간 기존 이용자의 일주일 평균 게임 시간은 7.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었는데, 신규 이용자의 게임 시간은 이보다 많은 9.9시간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국내의 한 게이머는 "친구들을 직접 보는 대신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에는 그 비율이 50 대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겨 갔다"고 말했다.

다른 조사 대상국인 미국·영국·독일과 달리 국내 신규 게이머는 기존 이용자층보다 연령대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이용자는 늘었지만, 게임에 쓰는 돈은 오히려 줄었다. 국내 모바일 게이머는 지난해 3월 이전에는 한 달 평균 22.17달러(약 2만5000원)를 썼지만, 이후에는 16.41달러(약 1만 8000원)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후 유입된 신규 게이머의 지출은 20.58달러(약 2만3000원)로, 기존 게이머(16.41달러)보다 확연히 낮았다. /연합뉴스

## 이동통신사 멤버십 혜택 온라인 위주로 재편

### 영화 할인 조정하는 대신 인터넷 콘텐츠 혜택 늘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사가 멤버십 혜택을 온라인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극장 관객 감소에 따라 영화 할인을 조정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과 인터넷 콘텐츠 혜택을 늘리는 추세가 뚜렷하다.

11일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멤버십에 온라인 쇼핑과 보험, 웹툰·웹소설 등 이용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T멤버십에서 캐시백·보험의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3만원 주유권을, 신라트립의 인터넷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T멤버십 고객에게 매일 최대 5%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마트몰과 SK스토아 할인 쿠폰, 이니스프리 온라인 구매 10% 할인 혜택, T월드 다이렉트샵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1만원 할인 쿠폰 등까지 온라인 쇼핑과 보험 혜택을 늘렸다.

인터넷 콘텐츠에서는 퍼블로그의 포토달력 미니 20% 할인 및 사진 인화 무료 쿠폰, 윈스토틀러의 웹툰·웹소설 무료 이용 혜택 등도 마련했다. KT도 지난해부터 매일 다양한 비대면 멤버십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 혜택으로 GS프레시몰, 더반찬 등 할인권을, 배달 및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외식 상품 혜택으로 도미노피자와 푸레쥬르, 버거킹, 스타벅스 등에 대해 할인을 제공했다. 자사 IPTV 올레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 에듀윌 온라인 자격증 등 콘텐츠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KT가 선보인 구독형 포토북 서비스도 멤버십 할인을 적용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LG유플러스 역시 VIP 이상 멤버십 고객 대상의 추가 서비스인 '나만의 록'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1개월 무료 서비스를 추가했다. 톱스 15% 할인 혜택도 추가하는 등 온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 선호도를 반영했다.

반면, 이전까지 이동사 멤버십 서비스로 가장 호응을 얻은 영화 혜택은 대폭 조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업계와의 제휴가 어려움을 겪고 고객 수요도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SK텔레콤 T멤버십은 기존 영화 혜택 제휴사 중 CGV, 메가박스와의 제휴 종료로 롯데시네마에서만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대신 SK텔레콤은 일부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 매일 2장씩 주던 영화 예매권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원 및 OTT 서비스로 대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CES 2021'

### 세계최대 전자·IT 전시회 삼성전자·LG전자 참가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1'이 11일(미국 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막한 가운데 세계 IT 업체들이 신기술과 미래비전을 과시했다.

CES 주최 측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행사에 130여개국에서 20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570개 ▲한국 345개 ▲중국 203개 ▲프랑스 135개 등 순이었다. 한때 CES를 휩쓸었던 중국 업체들이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영향으로 대거 불참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가해 CES 2021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집·일상·사람'을 주제로 참가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집약한 혁신 제품·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AI 솔루션을 탑재한 로봇청소기 신제품 '삼성 제트봇 AI', 제트봇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스마트싱스펫'을 공개했다. 현재 연구 중인 새로운 가정용 서비스 로봇 '삼성봇T1 핸디'도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스스로 물체의 위치나 형태 등을 인식해서 잡거나 옮기고 다양한 집안일을 돕는다. 이외에 돌봄 로봇, 서빙 로봇, 착용형 보행 보조



지난 11일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1'에서 LG전자가 디자인한 가상인간 '레아'가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로봇과 더불어 AI 기반 서비스들과 라이프스타일 가전·TV 제품들도 소개했다.

LG전자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가상인간 '김래아'와 세계 최초 롤러블폰 'LG 롤러블'을 처음 공개했다. 롤러블폰은 두루미리처럼 말았다 펼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말한다.

LG전자는 김래아를 컨퍼런스 연사로 앞세워 방역 로봇 'LG 클로이 살균봇', 2021년형 LG그램과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적용한 전문가용 모니터 'LG 울트라 파인 올레드 프로' 등을 소개했다.

AI와 연계한 가전 관리 애플리케이션 'LG 씽큐', '인공지능록'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LG전자가 미국 홈 서비스업체 '홈어드바이저'와 제휴해 LG 씽큐 앱에서 집안 가전을 다른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한편 국내 대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LG디스플레이, GS칼텍스, 만도, 한국엔컴퍼니그룹(전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모텔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가했다. 국내 스타트업은 사상 최대인 260개사가 참가했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각·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